<https://www.sj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933>

**뉴스기사 원문**

<질문> 경제부시장 취임 6개월의 성과와 2년차를 맞은 경제부시장으로서 시민과 세종시를 위한 역점시책은. 

답변

지난해 7월 1일 최민호 시장과 함께 취임한 후 6개월간 문화, 체육, 부동산, 투자유치, 교통 등 각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뒀다.  
그간 정부부처와 국회 등을 방문해 경제시책을 건의하고, 투자유치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많은 기업들과 소통을 했다. 행정수도 완성 측면에서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비(350억),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비(3억) 예산 반영, 지방시대위원회 세종 설치 확정(‘22.9.27) 등 짧은 시간 압축적인 성과가 있었다.  
문화.체육 분야에서도 ‘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충청권 공동유치에 성공, 세종의 미래 발전 교두보를 마련했으며, 무엇보다 미래전략수도 건설을 위한 기반 조성 측면에서 시민과 공감대를 마련했다는 점은 의미가 크다고 본다.   
투자유치 부분은 대기업(KT&G)과 중견기업(2개사)를 비롯한 유망기업 총 18개 8,528억을 유치하여 2,906명의 신규 고용 창출이 기대되고 있다.   
또 비수도권 최초 광역급행버스(M-Bus) 노선(세종충남대병원-대전시청) 신설 확정, 부동산 3중 규제 해제를 완전히 해제시켰다.   
앞으로 자족 기능 기반 마련을 위해 ‘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이끌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첨단 기업을 유치하고 특히 미래전략수도 달성 20대 전략과제와 연계한 주요 사업들이 순항하도록 중앙부처와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여기에 세종시의 특수성에 맞는 경제, 교육, 행정 특례를 실현하여 자족기능 제고 방안을 하나하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질문> 경제부시장 역할 중 가장 힘들었던 점은.

답변

취임 후 다양한 분야에서 각자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을 약 2천여명 정도 만나서 많은 대화를 나눴다.  앞으로도 시정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을 주실 분들을 만나 경청하고 소통을 할 것이다.  시장 보좌 업무를 비롯해 현안업무 등 처리해야 할 부분 또한 많아 늘 시간이 부족해 지나고 보면 아쉬움으로 남는다.  시간과의 싸움이다.  
미래전략수도 세종 건설을 위해 최대한 시간을 쪼개서 더 많은 부분을 들여다 볼 계획이며, ‘경제시장’으로 시작해 ‘문화시장’으로 기억되고 싶다는 최민호 시장의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제부시장으로서의 역할에 매진해 나갈 각오다.   
  
<질문>새해 경제부시장의 역점 사업은  
  
답변

2023년은 민정 4기 시정이 본격화되는 해다. 행정중심 도시 성장의 한계를 딛고, 행정수도를 넘어 미래전략수도로 성장하는 세종의 미래 100년을 가름할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수도에 걸맞은 행·재정 특례와 세종 경제자유구역·교육특구· 글로벌 청년 창업빌리지 조성 등을 통해 과학, 기술 중심의 자족도시로 성장시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는 울트라 세종을 만드는데 기여하겠다.   
아울러,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와 2025 국제금강정원박람회를 계기로 세종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실현하여 대한민국의 중심에서 국제도시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또한 현실적인 문제, 즉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상가공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 혁신과 제도 개혁에도 앞장서겠다. 

<질문> 민정 4기 2년차다. 세종시로서는 미래전략수도 건설이 화두라고 생각하는데 가시적 성과가 나와야 할 것이다. 이를위한 계획은.  
  
답변

모빌리티, 바이오, 데이터 산업을 집중 육성해 자족 기능을 확충하고 미래전략수도로 도약하고자 하는 큰 그림을 준비중이다.   
국내 최초 광역형 자율주행버스 운행과 UAM(도심항공교통) 도입 방안 마련을 통해 미래 신교통 서비스 기반을 구축하고 가속기 클러스터 추진을 중심으로 바이오헬스 산업 기반을 조성하여 미래 산업의 방향을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우선 가속기 산업 클러스터 추진단을 구성하여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혁신 클러스터 구상을 준비중이다.   
또 세종시는 주요 국가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만큼, 사이버 보안 산업을 육성하여 미래전략수도로서의 위상을 다지도록 하겠다.  
세종시 발전을 10년 이상 앞당길 대규모 행사인 ‘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와 ’25 국제금강정원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서도 노력을 기울이겠다. 관광코스 및 세종굿즈 개발, 외국어 인력 육성, 관광컨벤션 및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호텔‧숙박시설 유치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질문> 중견기업급 이상의 기업유치가 있어야 세종의 자족기능이 획기적으로 호전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답변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서는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과 기업 유치가 가장 중요하며, 단번에 지역 발전과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대기업 등 중견기업 이상 유치를 위해 힘쓰고 있다.  
이를 위해 ‘23년에는 미래첨단산업 분야 우량기업 유치라는 실질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기업규모 및 미래 발전가능성 등 우리 시에 적합한 기업을 발굴하고 유치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과학기술 기반의 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해 첨단기업 유치를 위한 산업기반을 조성하겠으며, 신기술을 실증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로 공간을 제공해 첨단 우량기업을 유치하고 이로 파생되는 양질의 일자리 확보에 나서겠다.  
기업인 출신의 민정 4기 첫 경제부시장으로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기업 투자를 이끌어내는 일에 매진할 각오다.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보조금 등) 강화 및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제작해 투자환경과 지원정책을 적극 홍보하고 이미 투자한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관외 이탈을 방지하고 시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을 다하겠다.

<질문> 이미 확정된 정부 기관을 제외하고 중앙부처 추가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지. 있다면 어떤 기관인지?  
  
답변

현재 정부부처 등을 포함한 중앙행정기관 55개 중 23개 기관이 세종으로 이전했고, 정책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25개의 공공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한 상황이다.   
행정수도 기능 완성과 정부행정 효율화를 위해서는 아직 수도권에 잔류하고 있는 21개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이 필요하다.  
현재 여가부, 법무부의 이전을 위한 행복도시법 개정안과 감사원의 세종시 이전을 위한 감사원법 개정안이 의원 발의로 국회 계류 중이다.   
동시에 세종시로 이미 이전한 중앙행정기관과 국책연구단지 등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연구 및 수행을 위한 공공기관의 세종시 이전을 목표로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이전이 결정된 해당 부처들의 조속한 이전을 위해 정부 및 국회 등에 건의와 함께 추가로 이전이 확정될 경우 행정적인 협조에도 최선을 다 하겠다. 

**<뤼튼에게 해당 기사 요약 및 세종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정책,사업 요약>**

세종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정책, 계획, 사업을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도에 걸맞은 행·재정 특례와 세종 경제자유구역·교육특구·글로벌 청년 창업빌리지 조성 등을 통해 과학, 기술 중심의 자족도시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와 2025 국제금강정원박람회를 계기로 세종의 무한한 가능성을 실현하여 국제도시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3. 규제 혁신과 제도 개혁을 통해 기업유치를 촉진하여 일자리 창출과 상가공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4. 모빌리티, 바이오, 데이터 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자족 기능을 확충하고 미래전략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 중입니다.

5. 가속기 클러스터 추진 및 UAM(도심항공교통) 도입 방안 마련으로 미래 신교통 서비스 기반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6. 가속기 산업 클러스터 추진단 구성과 사이버 보안 산업 육성으로 지역 혁신 클러스터와 미래전략수도의 위상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7. 세종시 발전을 위해 '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와 '25 국제금강정원박람회 개최에 노력하며 관광산업 육성 및 호텔‧숙박시설 유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할 계획입니다.

8. 청년 일자리 창출과 대기업 등 중견기업 이상의 유치를 통해 자족 기능 확충에 주력합니다.

9. 과학기술 기반의 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신기술 실증 테스트베드 제공으로 첨단 우량기업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확보에 나서겠습니다.